

광주 동구·남구 '장애인 재활' 우수 지자체



광주 동구 보건소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남구 보건소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운동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최우수 기관상 수상 동구, 낙상 예방 '통뼈' 만들기 남구,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광주 동구와 남구가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우수' 자치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18일 광주 동구와 남구에 따르면 광주 동구는 장애인 재활방문서비스, 장애인 운동교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낙상 고위험군 통뼈 만들기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추진해 전국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동구는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12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건

강검진 지원과 낙상 고위험군 유래 상패 통뼈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재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남구 동구 보건소장은 "장애인 재활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도 장애인을 위한 낙상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뇌병변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적장애 성인을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구는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해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인 '오타고 II'와 뇌병변 대상자를 위한 '희망더하기 뇌건강 증진교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감각통합 프로그램', 지적장애 성인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장애인식 개선교육 및 장애예방 캠페인, 전문 의료기관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의 재활 의지를 높이고 있다.

남구는 특히 의료기관과 연계한 전문 의료서비스 지원 정책을 비롯한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 돼 재활의지를 높이는 오카리나교실, 어린이 난타 등 각종 체험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면서 "특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으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동구와 남구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리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

회는 전국의 재활사업 운영하는 전국 170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수행한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 운영 성과와 노력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인 동구보건소가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장애인재활사업을 펼쳐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장애인도 불편없이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복지 하면 광주 남구가 떠오를 수 있도록 선진 복지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희망의 집' 선물 받은 위탁아동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2곳 수리 지원

고령의 할머니와 살고 있는 민지(가명)양은 고등학교 1학년이다. 민지양의 집은 화장실이 집 밖에 있고 씻을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 항상 사생활보호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돼 있었다.

최근 민지양은 이같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문정훈·센터)가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뽑히면서다.

센터는 지난 2월부터 10일동안 주거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위탁아동 2명을 선정,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아동에게 희망의 집을 선물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주거공간에 고통받으며 집보다 밖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지역 내 복지재단 등은 주거환경 개보수를 위한

35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했다.

민지양은 집 밖에 있던 화장실과 샤워실을 집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참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인 민지양이 마음 놓고 씻을 수 있는 공간 생긴 것이다.

민지양은 "그동안 씻을 곳이 마땅치 않아 고통스러웠다"면서 "집을 고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위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따뜻하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잡고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서구 '한방 중풍예방교실' 선착순 모집

광주 서구가 한방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나선다.

18일 서구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중풍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운영한다. 중풍예방교실은 오는 8월22일부터 10월까지 10주 과정으로 삼릉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한의약 중풍예방교실은 매주 화요일마다 전문 의료진들이 중풍예방 및 관리, 음식상환 대처법, 식이관리, 기공체조 등 다양한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저염식 선호

율과 삶의 질 척도 등 개인별 건강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의 중풍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원모집은 65세 이상 5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전화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 및 기타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062-350-4132~3)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평형기능 이상도 귀 장애... 12년 된 장애분류표 바뀐다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 공청회서 개정방안 발표

장애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애분류표상 장애 판정 기준이 구체화된다.

하나의 장애로 인해 여러 파생장애가 발생할 경우 각 파생장애 정도를 합산해 지급률을 결정한다.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는 최근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 개선'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분류표 개정방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장애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손상을 뜻한다. 장애분류표는 그 손상 정도를 판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장애분류표는 2005년 개정된 이후 10년 넘게 사용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장애분류표에서는 장애 기준을 신설하고 장애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거나 객관적인 장애 평가방법을 마련했다. 예컨대 귀 장애에 평형기능 장애를 추가했다. 기

존에는 귀 장애를 판단할 때 청력만 기준이 됐다. 치매는 임상 증상뿐 아니라 뇌 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돼야 한다는 평가 기준도 신설됐다. 코 장애를 호흡과 후각기능을 구분해 지급률을 차별화하고, 코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평가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하나의 장애로 인해 여러 종류 파생장애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파생장애를 합산하고서 최종 장애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파생장애를 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계산했다. 예컨대 신경계 장애(지급률 15%)로 팔

(10%), 다리(10%), 발가락(10%)에 장애가 생겼다면 현재는 팔, 다리, 발가락 장애를 개별적으로 신경계 장애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신경계 장애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

새 장애분류표에서는 팔, 다리, 발가락의 파생장애를 합산한 값인 30%를 최종 장애인 신경계 장애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합산 파생장애를 지급 기준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청회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장애분류표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9월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개정 장애분류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장애인 선박 이용 불편 줄인다

인권위 권고 해수부 수용

장애인이 여객선 등 선박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해수부 장관이 수용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관련 규정을 고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함께 권고를 받은 한국해운조합도 목표 등에 있는 여객운송사업체 59곳에 인권위 권고사항을 개별통보하고 경영지도와 홍보를 시행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승강 설비를 갖춘 여객선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해수부와 한국해운조합 등에 권고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참숯구이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